

예수의 질문법을 배워라

예수는 질문의 달인이다. 핵심을 찌르며 상대가 대답하기를 기다린다.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간다. 또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줄 때도 그는 늘 질문화법을 사용했다.

-“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?”(마르 8:29)

-“평안하냐?”(마태 28:9)

-“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?”(마태 15:16)

-“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?”(요한 9:36)

-“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?”(루카 8:25)

상황에 따라 어떤 질문화법으로 대화를 리드하느냐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와 일치한다. 예수의 질문화법은 그 안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.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포장하여 순간을 파고들어 가는 질문화법이야말로 당신을 ‘말맹’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언어가 될 것이다.